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리뷰

2024.11.(제 10호)

서울시 가정위탁 생활현황 및 정책수요*

임수경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 아동보육정책팀

[관련 분야 재단 연구 실적]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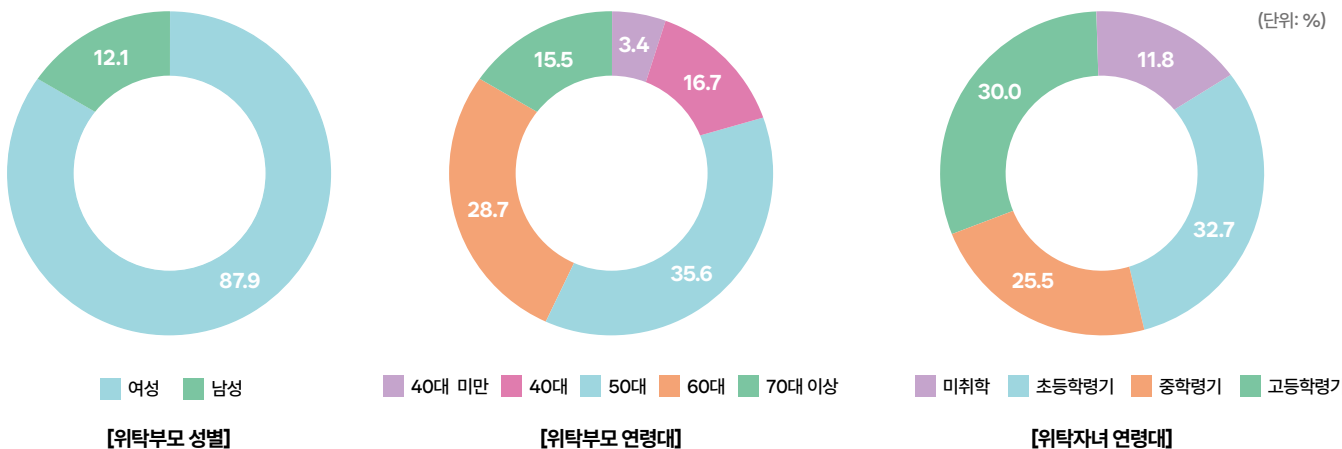
아동학대 예방대응을 위한 아동인권전문가 제도 실효성 강화 방안(2023)

서울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전문성 강화방안(2022)

가정형 보호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강화는 국제적 흐름으로 볼 수 있다. UN 아동권리협약(CRC)에서는 시설보호보다는 가정형 보호, 특히 가정위탁을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도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과 아동정책 추진방안(2023)**에서 이를 반영하여 가정형 보호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가정위탁 보호조치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는 전국 평균 보다 그 비율이 낮다. 가정위탁을 활성화하고, 보호대상 아동에게 안정적이고 발달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위탁가정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가정위탁의 긍정적·발전적 운영을 위해 위탁부모의 생활경험 및 정책 수요를 확인하여 서울시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서울시 가정위탁 생활 경험 및 정책 수요 조사

- ▶ 조사 대상 및 참여 현황 : 서울시 거주하는 가정위탁 양육자 174명
- ▶ 조사 방법 및 조사 기간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 2024년 5월 23일 ~ 6월 7일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2024년에 수행한 「서울시 아동보호체계 개편 방안 연구: 가정위탁 활성화를 중심으로」(임수경·김태은, 2024)의 연구결과를 재분석한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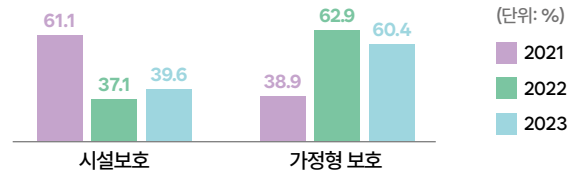
** 관계부처합동. 2020. 「제2차(20~24) 아동정책 기본계획」

*** 관계부처합동. 2023.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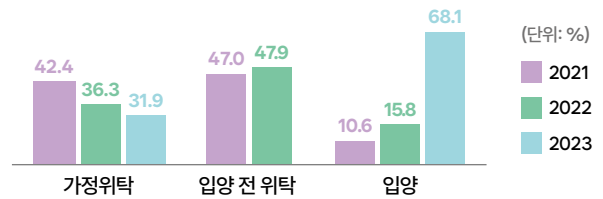
서울시 가정위탁 보호 현황

○ 최근 2년간 가정보호 비율은 약 1.5배 증가했음에도 여전히 낮은 서울시 가정위탁 보호율

- 2023년 가정보호 비율은 60.4%로 2021년(38.9%)과 비교하면 약 1.5배 정도 증가
- 2023년 가정보호 중 입양이 68.1%로 가장 높았고, 가정위탁은 31.9%로 나타남.
- 2020년 미국의 가정 외 보호아동 중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비율은 79%¹⁾, 영국의 경우는 72%²⁾로 이와 비교하면(고승오, 2022: 2 재인용³⁾), 국내 가정위탁 보호의 확대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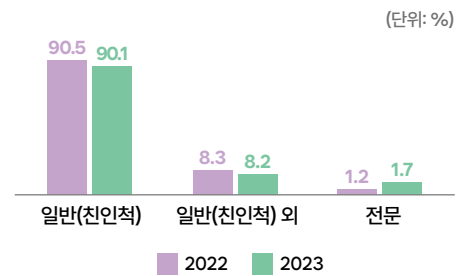
|그림 1| 서울시 보호유형별 아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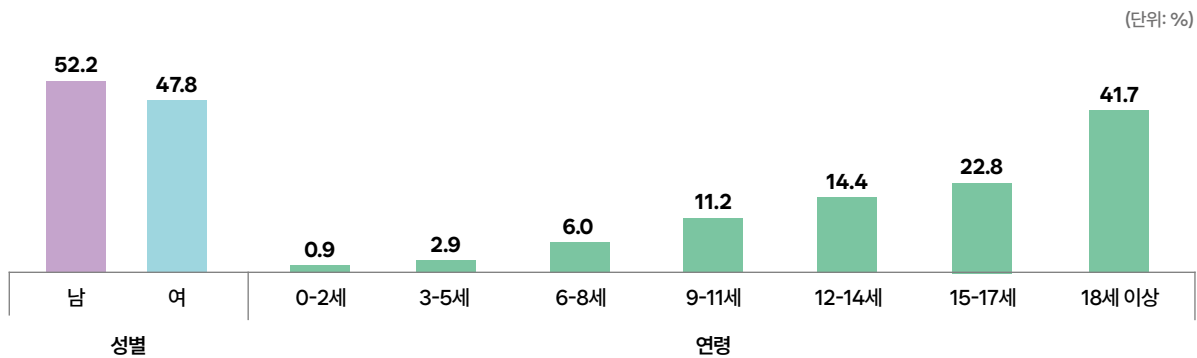
|그림 2| 서울시 가정형보호 아동 현황

○ 서울시 가정위탁보호는 일반(친인척) 위탁이 90.1%로 대다수

- 2023년 서울시 위탁아동 수는 784명이며, 이 중 90.1%가 일반(친인척)위탁이며, 일반(친인척 외)위탁 8.2%, 전문위탁 1.7% 순으로 나타남.
- 서울시 위탁아동의 성별 비율은 남아가 52.5%, 여아가 47.8%로 남아가 4.7%p 더 높음. 2023년 서울시 아동 성별도 남아(51.3%)가 여아(48.7%)보다 높아 유사함.
- 연령별 비율은 18세 이상이 41.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15~17세 22.8%, 12~14세 14.4%, 9~11세 11.2% 순으로 나타남.



|그림 3| 서울시 가정형보호 아동 현황(유형별)



|그림 4| 서울시 가정위탁보호 아동 현황(성별, 연령)

1) Children's Bureau, 2021

2) GOV.UK, 2021: The Fostering Network

3) 고승오. 2022. 「위탁보호자 승인체계에 대한 해외사례 탐색-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서울시 위탁보호 동기 및 가정위탁의 효과

○ 비혈연 위탁의 경우 ‘아이를 좋아하는 마음과 사회적 책임’에 의해 위탁을 결정하였고 보다 큰 긍정적인 변화 경험

- 위탁 동기는 ‘혈육이기 때문에’가 4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아이를 좋아해서’ 14.2%(116명), ‘사회적 책임감 때문에’ 11.4%(93명), ‘위탁자녀의 친부모와 아는 사이여서’ 6.4%(52명) 순으로 나타남.
- 유형별로는 살펴보면, 대리 위탁과 친인척 위탁은 ‘혈육이기 때문에’가 대표적 위탁동기였으며, 전문가가정위탁과 비혈연 위탁은 ‘사회적 책임’과 ‘아이를 좋아해서’ 위탁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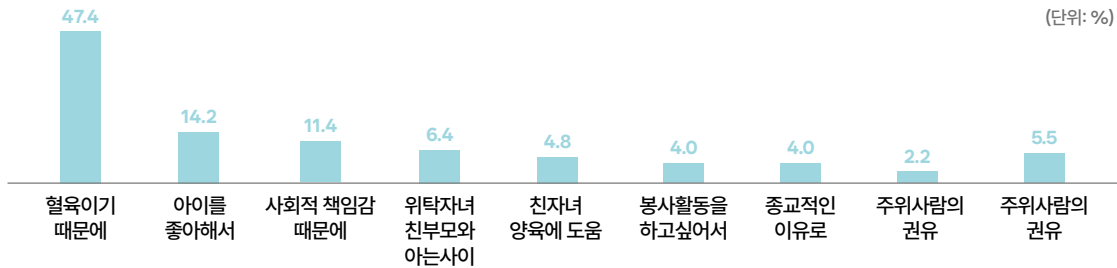


그림 5 | 위탁 동기(1+2+3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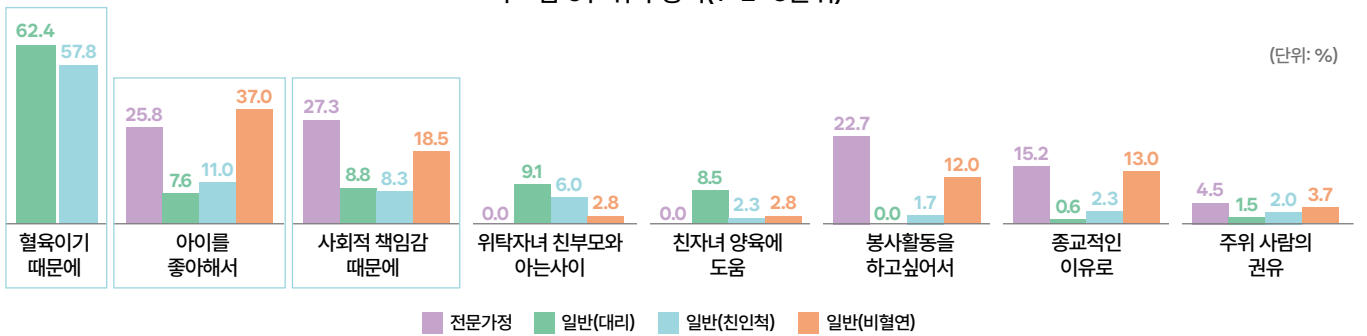


그림 6 | 위탁유형별 위탁 동기(1+2+3순위)

- 위탁부모가 경험한 위탁 후의 전반적인 변화 정도는 평균 3.93점으로 대체로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평가함. 항목별로는 ‘개인적 보람’이 평균 4.1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족구성원 간 유대 강화’ 평균이 4.08점, ‘위탁자녀의 발달 및 행동 특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 향상’이 평균 4.06점 순으로 나타남.
- 유형별로 전반적인 변화 정도를 비교하면, 비혈연과 전문 위탁(평균 4.34점, 평균이 4.03점)이 혈연관계에 있는 친인척(평균 3.88점)과 대리(평균 3.82점) 위탁보다 변화 정도가 더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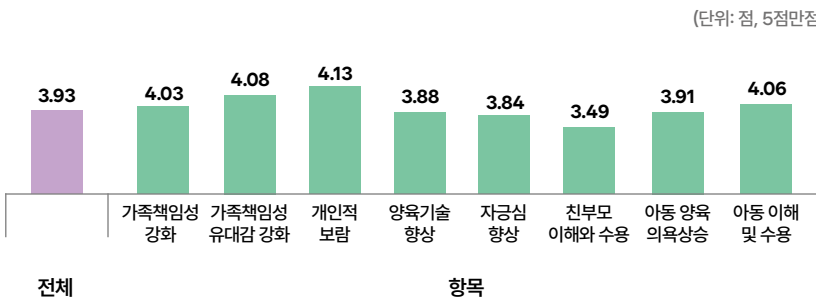


그림 7 | 위탁 후 긍정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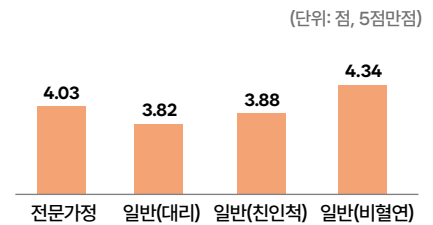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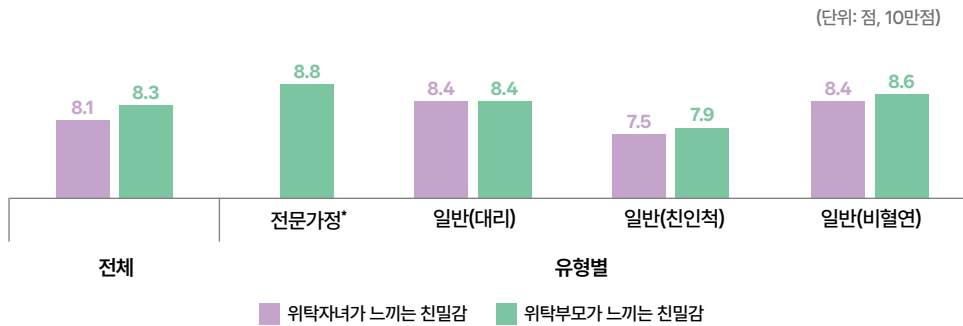


그림 8 | 위탁유형별 위탁 후 긍정적 변화 (전체)

서울시 위탁가정의 삶의 수준 및 관계

○ 위탁부모가 느끼는 위탁자녀와의 친밀감은 평균 8.26점으로 ‘친밀하다고 인식’

- 위탁부모가 느끼는 친밀감은 평균 8.3점, 위탁자녀가 느끼는 친밀감은 평균 8.1점으로 위탁부모와 위탁자녀 모두 서로 친밀하다고 인식함.
-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탁부모는 전문 가정위탁*이 평균 8.8점, 비혈연 위탁이 평균 8.6점으로 타 유형보다 높았음. 또한, 위탁자녀는 비혈연 위탁과 대리 위탁에서 8.4점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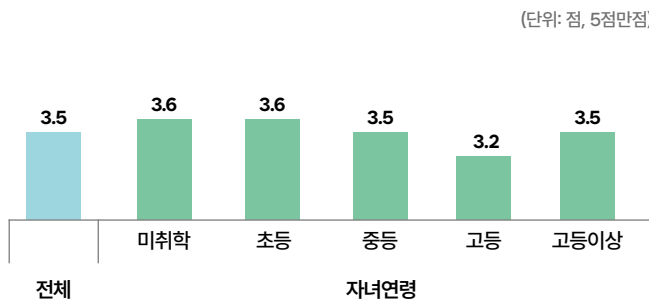


|그림 9| 위탁부모와 위탁자녀의 친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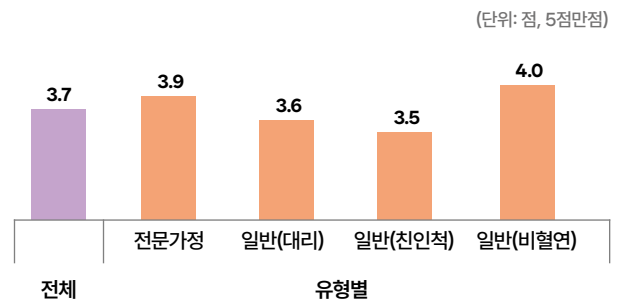
* 위탁자녀 중 전문가정위탁의 대상에 해당하는 영아, 장애아동의 경우 직접 설문진행이 어려워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위탁부모는 위탁자녀에 대해 높은 수준의 긍정적 태도를 보이며, 비혈연 위탁의 경우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높음

- 위탁부모의 긍정적 태도는 평균 3.5점으로, 서울시 양육자의 긍정적 태도⁴⁾(평균 3.19점)보다 높았음. 또한, 위탁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위탁부모의 긍정적 태도가 높음.
- 부모 역할 자신감은 평균 3.65점이고, 위탁유형별로는 비혈연 위탁(평균 4.0점)과 전문 가정위탁(평균 3.9점)의 경우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타 유형보다 높음.



|그림 10| 위탁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그림 11| 위탁부모의 부모역할 자신감

4) 김아래미, 김송이, 김진석, 양영미, 윤여원, 이정태, 김소현, 이정민. 2023. 「2023년 서울특별시 아동종합 실태조사」, 서울특별시·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리서치앤리서치.

○ 위탁가정의 긍정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위탁부모와 위탁자녀간 ‘친밀감’,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 ‘위탁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위탁가정의 긍정적 변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침

- 부모 역할 자신감과 위탁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 그리고 위탁부모와 자녀간의 친밀감이 높을수록 위탁가정은 긍정적 변화를 경험함. 더불어 친인척 관계의 위탁가정보다는 비친인척 관계의 위탁가정에서 긍정적 변화의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위탁부모의 양육태도와 양육기술 등의 부모교육과 함께 위탁 초기부터 위탁부모와 자녀간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위탁가정의 긍정적 변화에 필요함. 더욱이 비친인척 위탁에서 긍정적 변화를 더 많이 경험함에 따라 위탁자녀와 부모의 관계형성 및 긍정적 양육태도를 상호간에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표1] 위탁가정의 긍정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회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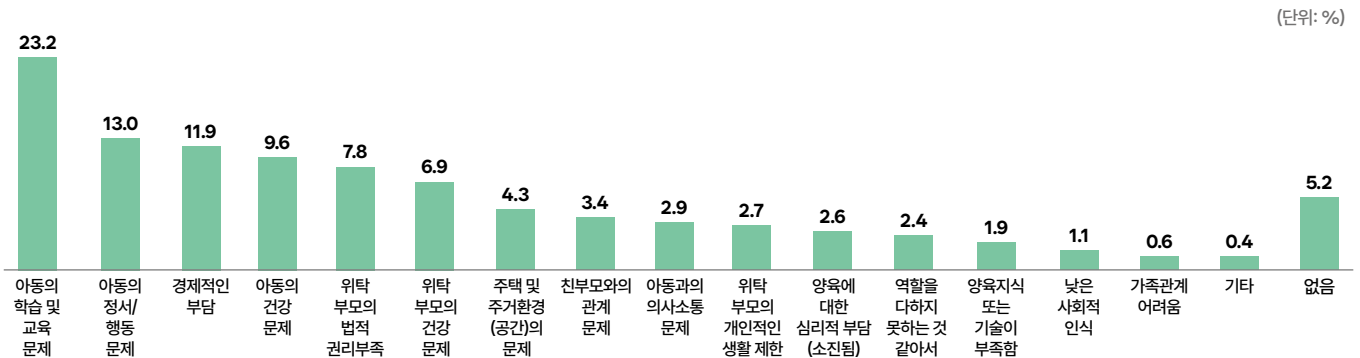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독립변수	β	R ²
긍정적 영향	위탁부모와 위탁자녀간 친밀감	.313 [#]	위탁자녀 연령	.105	0.447
	주변의 부정적 태도	-.043	위탁부모 연령	-.085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	.420 ^{***}	위탁유형	.116 [#]	
	위탁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	.267 ^{***}	위탁기간	.041	

주: [#]p<.01, *p<.05, **p<.01, ***p<.001

서울시 위탁가정이 경험하는 어려움 및 돌봄 시간

○ 전반적으로 ‘아동의 학습·교육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가장 크고,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와 ‘경제적 부담의 어려움’ 순으로 나타남.

- 위탁 시 어려운 점은 아동의 학습 및 교육문제(23.2%), 아동의 정서/행동문제(13.0%), 경제적인 부담(11.9%)이 주를 이룸.
- 유형별로는 대리 위탁과 친인척 위탁은 ‘아동의 학습 및 교육문제’에서 어려움을, 전문가정 위탁은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와 건강문제’에서 어려움을, 비혈연 위탁은 ‘위탁부모의 법적 제도적 권리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



[그림 12] 위탁자녀 양육 시 어려움(1+2+3순위)

서울시 가정위탁 생활현황 및 정책 수요 : 위탁부모의 경험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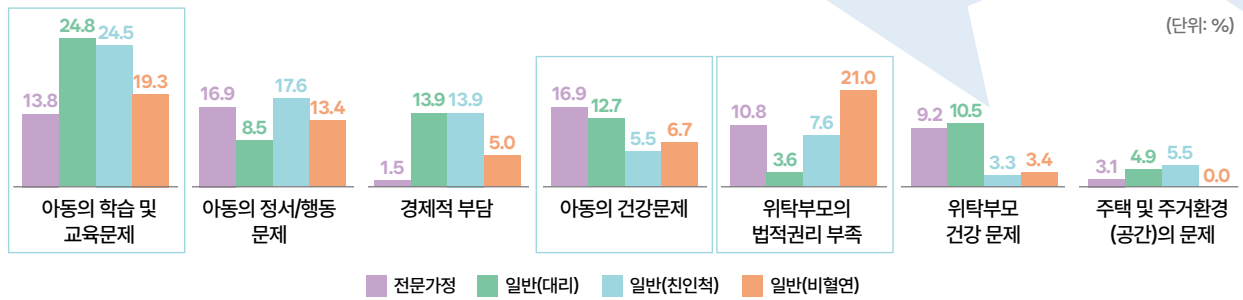


그림 13 | 위탁유형별 위탁자녀 양육 시 어려움(1+2+3순위)

○ 서울시 양육자의 자녀 돌봄시간 대비 위탁부모의 위탁 자녀 돌봄시간이 더 길었음

- 위탁가정은 자녀를 돌보는 데 평일 평균 5.4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는 2022년 서울시 양육자 실태조사(강희영 외, 2022⁵⁾의 주중 평균 돌봄 시간(3.27시간)보다 2.1시간 더 길었음.
- 주말은 평균 9.3시간으로 2022년 서울시 양육자 실태조사(강희영 외, 2022)의 주말 평균 돌봄시간(5.46시간) 보다 3.8시간 더 자녀와 시간을 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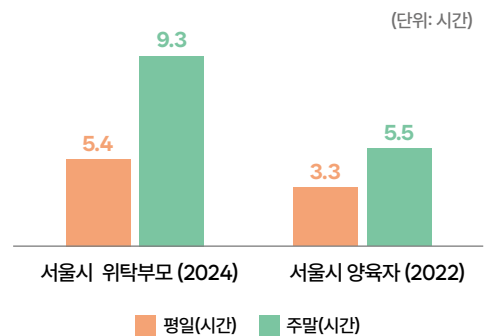


그림 14 | 위탁자녀 돌봄 시간(평일, 주말)

서울시 가정위탁의 정책 수요

○ 위탁가정은 ‘양육비용 및 물품지원’을, 위탁 자녀는 ‘일상생활지원’을 가장 원함.

- 위탁자녀 양육 시 최우선 필요한 지원으로는 양육비용 및 물품지원, 위탁부모의 질병 및 긴급사항 발생 시 돌봄 지원, 위탁부모 휴식(휴가) 지원, 상담지원에 대한 정책요구가 높았음. 특히 친인척 위탁은 양육비용 및 물품지원을 비혈연 위탁은 위탁부모의 질병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 지원을 원함.
- 위탁 자녀는 일상생활지원(4.05점) 수요가 가장 높았고, 학습지원(3.68점), 자립지원(3.51점), 건강지원(3.23점), 상담지원(3.02점)이 뒤를 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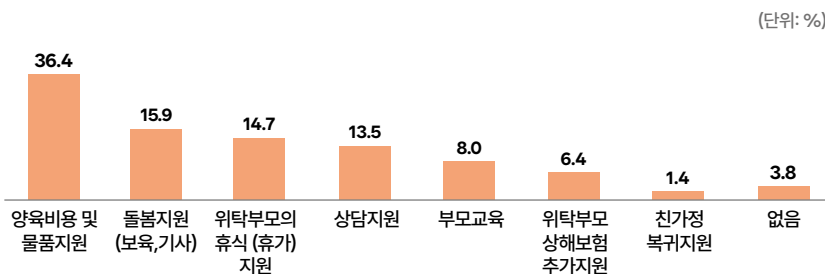


그림 15 | 자녀 양육지 필요 지원 (1+2+3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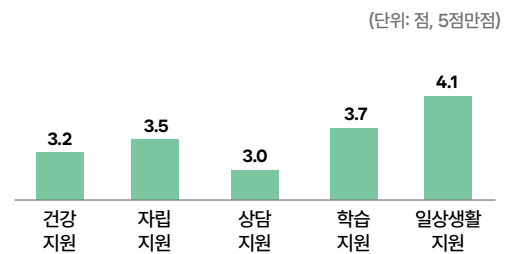


그림 16 | 위탁 자녀가 필요로 하는 지원

5) 강희영, 나성은, 조막매, 김송이, 강은애. 2022. 「서울시 양육자 생활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시사점

○ 서울시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탁부모의 발굴과 확대, 위탁가정 내실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

첫째, 위탁부모의 발굴과 확대

- 위탁경험의 긍정적 영향과 삶의 수준은 비혈연 위탁에서 높게 나타남에 따라 이와 같은 유형을 중심으로 위탁부모 발굴과 확대의 필요성이 있음. 위탁자녀에 대한 양육 부담과 법적 권한 제한, 주변의 불편한 시선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
- 캠페인과 방송매체를 통한 광고 등 대국민 홍보와 위탁부모의 돌봄 보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등 가정위탁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의 모색 필요.

둘째, 가정위탁 내실화를 위해 위탁가정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영역별 지원

- (경제적 지원) 위탁 자녀 양육시 필요한 지원으로 ‘양육비용 및 물품지원’을 가장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위탁가정의 양육보조금을 현실에 맞게 증액하고, 위탁자녀의 연령과 필요에 따라 사교육비, 학습교재비, 후원 및 지역사회 내 다양한 복지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음.
- (휴식지원) 위탁부모의 돌봄시간은 평일 5.4시간, 주말 9.3시간으로 서울시 양육자 돌봄시간(강희영 외, 2022) 평일 3.27시간, 주말 5.46시간과 비교하면 약 2.1시간~3.9시간 더 길게 나타남. 위탁부모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시간제 돌봄지원과 위탁부모의 휴식 지원이 필요.
- (양육지도 지원) 위탁부모는 위탁자녀 양육 시 학습 및 교육문제, 정서 및 행동문제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위탁아동은 일상생활지원에 있어 학업지원을 가장 원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 (초기 적응 및 심리지원) 위탁아동의 초기적응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지원과 함께 원가정 분리에 따른 위탁아동의 심리지원이 요구됨. 가정위탁 배치 초기 가족관계를 새롭게 구성할 때, 심리적 및 관계적 적응을 위해 전문가의 상담심리치료를 지원하여 긍정적인 가족관계 확립과 아동의 초기 적응 지원이 필요.
- (법적 권한) 위탁자녀에 대한 법적 권한의 부재로 행정업무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임. 특히, 친부모가 협조적이지 않거나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을 경우 위탁부모는 친부모와 연락되기를 기다려야만 하는 막막한 상황임. 위탁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필요한 일상적인 수준으로 위탁자녀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및 규정 검토 필요.